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2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6(통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덧 찌는 듯한 무더위를 뒤로하고 신선한 가을 바람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위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서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진실한 마음으로 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민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일해오던 김대중 대통령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분이 보이셨던 당당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보이셨던 따스함을 닦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돌아봐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가시던 자유와 평화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84. 히브리서11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민주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99(통418). 하나님 사랑은 다함께

성경봉독 I. 마26:36-46 최다미 학생

..... II. 고후5:16-21 윤미경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바위는 기도한다 김재흥 목사

..... II. 화해자로 산다는 것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연 주 (바이올린) 홍지희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들고 있던 그릇된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편협하고 응졸해진 마음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성서로 배우는 평화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경선 집사 조병무 장로	임창주 학생 곽권희 권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병희 배근수 강순배 박미영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돈 없이 사는 방법은 없나요?

할아버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도 늘 돈 걱정하시고, 사람들은 다 돈 벌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돈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너무 돈, 돈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

요.

- 주란 올림

미안하다만 이번에는 네 질문에 말트집을 좀 잡아야겠구나.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말했다만,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선 나부터가 돈을 좋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돈은 따로 좋아할 만한 물건도 아니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내가 정말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조금만 생각해보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쓰는 돈, 돈을 쓰는 사람, 너는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 사람이라고? 당근이지!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지 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지도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야. 다만,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

게 여기지 말라는거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거나 해코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먼저 인생을 망치는 법이지.

또, 너는 “부모님도 늘 돈 걱정하시고 사람들은 다 돈 벌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 심정은 이해가 된다만,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진짜로 네 부모님이 늘 돈 걱정을 하신다면, 그런 부모님은 결코 네가 본받을 분들이 아니라는 얘길 해주고 싶구나.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날이면 날마다 돈 걱정이나 하면서 산단 말이나? 무슨 그런 개떡같은 인생이 다 있느냐? 제발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싶구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한 마디로, 돈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하느님은 너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어떻게하면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걱정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쓸 돈이 들어올 것이다.) - 마태오복음 6장.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돈을 어떻게 쓰면 하느님이 좋아하실까를 걱정하라는 거야. 링컨 대통령이 돈 걱정하고 간디 선생님이 돈 벌 궁리했다는 말 들어봤니? 네 눈엔 사람들이 돈 벌 궁리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돈 벌 궁리 따위 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어도 아주 많이 있단다. 네 눈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어찌다가 네 눈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너무 돈 돈 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이는지, 마음이 아프지만, 부탁한다. 이 세상엔 그런 못난이들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곧장 가고 있는 멋진 인생들이 참 많단다. 그 훌륭한 선배들을 바라보며 씩씩하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네 모습이 보고싶구나.

■ 마/음/으/조/워/는/글

등 불

저 조그마한 불길 속에
누가 타오른다.
아프다고 한다. 뜨겁다고 한다. 탄다고 한다.
허리가 다리가 뼈가 가죽이 재가 된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아 나의 얼굴
코도 입도 속의 살도
폐가, 돌 모두가
재가 되어진다.

- 천상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문복순 최현선 박병구 김정애
 박영희 안정숙 이광용 형인순 이성운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허신열 김정애

월정헌금:

박상규 김시영 백혜성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이소순 유지은
 정완수 김재광 송임희 이재구 황선희 고숙이 문홍일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왕성환 강순배 우순덕 장여숙 조병무 송야진 홍선희
 임주빈 최현옥 허신열 강금연 김지현 김지은 고재중 정현창 이운화
 백혜성 무명5

생일감사헌금: 권미정 이성운

녹색꿈 헌금:

장주연 박홍재 이재문 김기석 김희우 전충길 윤성희 고유비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솜	솜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8월 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 **여름행사보고** : 오늘 오후집회는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보고회로 모이겠습니다.
3. **교사교육** : 3분기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29일(토) 오전10시부터 열립니다.
4. **신앙실천** : TV시청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줄여 보십시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서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다음 주 : 가나안 속)

* 설거지 봉사 : 허호범 박성실 (다음 주 : 한상익 이준하)

새교우 소개

김혜영 (8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